

사랑과 현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 날 이교백성 가운데서 들려 오는 말소리,
 “놀라와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던가.

야훼여, 저 네겅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 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시편 126)

이상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해서 때로는 잘 적응하고 대처해 가지만 때론 지극한 좌절과 실망을 겪기도 한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노라면 어려워 좌절하고 실의에 빠졌던 시기가 오히려 나를 더욱 성장시켜 준 시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인생여정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는 그 어떠한 답도 그것 자체로서 보편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의 이상과 현실은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한 늘 긴장을 일으키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멋들어진 삶의 이상이 낭만적으로 나를 사로잡아버리지만 삶의 현실은 늘 그것과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회에 입회해서 사제가 될 꿈을 키우며 열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진 고생을 감수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과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의에 찼던 이상을 돌이켜보고, 사제가 된 이후 현실에서 전개되는 삶을 되돌아보면 웬지 순수한 사랑과 희생적 봉사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상은 늘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인가?

이상과 현실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인간조건을 시편 126편을 통해 묵상해 보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이 구절에 담긴 ‘수고와 기쁨’이라

는 기본 맥락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아니 우리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 자신이 놓여진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내가 당면하는 문제들은 내가 수도자이기에, 사제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고, 또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역시 자신이 놓여진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인 이상 이러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결혼한 이들은 결혼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독신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은 독신생활을 하기에 그 나름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상대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면서 '이러저러 했더라면.....', '차라리 수도자가 되었더라면.....', '차라리 결혼했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부정하기도 한다.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이상과 적나라한 현실의 긴장이 일으키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야훼께서 이루신 일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 날 이교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와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

들!” 여기에서 특별히 과거를 회상하며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이 백성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으며, 이 백성은 신앙으로 응답했고 기쁨에 넘쳐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편에서 묘사하는 현재 상황은 기쁨이 이미 사라져 없어졌고, 그 놀라운 기적들 역시 그저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불과한 처지이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하느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대해 이렇듯 놀라는 경탄은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이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려니 하였다”(사도 12,9). 그분께서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께서 하시는 수고스러운 노력에 놀라고 경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닌 신앙의 생생한 증거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시편이 묘사하는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경탄을 발했고, 그들의 입은 웃음과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가득 찼다. 이교백성들마저 이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시편 저자는 노래한다. 이교백성들까지도 하느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하느님 야훼께서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 일하시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기를 청하는 저자의 탄원을 읽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뒤바꾸시는 분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들이 지껄이는 소리들 위에 고함을 치시는 분으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 하느님께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특별한 인물을 통해 역사 안에 개입하신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며 그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믿음을 이스라엘은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처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요한 1.14).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조건 안에서 살아가셨다. 이스라엘인들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신앙의 눈으로 알아보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참인간이셨다.

현재의 슬픔에서 내일의 기쁨이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 후, 하느님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당신 백성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한다: “야훼여, 저 네겔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 오소서.”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도 우기가 끝나는 봄이 되면 골짜기에 물길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다 여름이 되어 열기가 치솟으면 어느새 골짜기는 바짝 말라버린다. 남는 것은 모래와 먼지로 뒤덮인 바위뿐이다. 하지만 네겔의 남쪽 지방에는 샘들이 있어서 물길이 좀더 오래 지속된다. 현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곳에는 주변 골짜기에 물을 대어 비옥하게 만들던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다 한다.

“야훼여, 저 네겔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 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성서에 묘사된 물길이란 팔레스티나 거주인들에겐 단지 변덕의 상징만은 아닐 것이다. 한 예로 욥기에서 “나의 형제라는 자들도 변덕이 심하기가 물이 넘쳐 흐르던 사막의 개울바닥 같네” 하고 울부짖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욥기 6,15). 이렇게 메마르고 어지럽고 좌절에 빠진 시기에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되살려 주시기를 청한다. 물론 여기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은 바빌론 포로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오는 유대인들의 체험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기대와 성취라는 변덕스런 대조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런 표현은 제2이사야가 이 사건을 과거 백성들

이 겪은 가장 위대한 사건과 견주는 모습과 비슷하다.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향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막을 건너 비옥한 땅으로 승리의 행진을 벌이는 것과 같기에, 어쩌면 과거의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일런지 모른다. 그렇기에 예언자는 유배로부터의 귀향을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홍수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묘사하고 있다(이사 43.19-20 참조).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빌론 유배로부터의 귀향이 얼마나 힘겹고 짜증나는 일이었는가를 알게 된다. 그들은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것이며, 그들이 고대하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이미 오래 전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고생하며 고향을 다시 재건해야만 했다. 경제적으로 땅은 황폐했고,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재건될 희망은 조금도 없었다. 이미 타민족이 그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고립되어 남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힘과 의미가 없는 처절한 절망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현자들과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내일의 종말론적 희망을 일깨워 준다. 왕국은 이미 바빌론 유배를 통해 와해되고 없어져 다시 회복될 수 없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도래하시리라는 희망이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땅과 위대한 왕국에 대한 희망은 종교적으로 승화되어 갔다. 이스라엘



은 이제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궁극적 방향을 알아보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근원적 소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들이 기대하던 야훼의 오심은 이제 미래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언제?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있다. 내일의 기쁨은 현재의 슬픔으로부터 피어난다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내 삶의 구체

적 현장에서도 늘 사실이다. 내가 현재 겪는 여러 어려움에서 내일의 기쁨이 피어난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좌절과 변덕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다스리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모험들을 없애거나 피하려 들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나의 투신을 깊게 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위해

시편 저자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즉흥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른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지, 다가오는 체험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도무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해답은 있는 것일까? 인간이 공통된 체험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젊은이가 여인과 사랑에 빠져 오랜 기간 교제를 한 후,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결혼한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후 결혼 생활은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유연성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자동적 해답 혹은 쉬운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예이기도 하다. 단지 실천적인 해답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발견하

게 되든지 그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수회 사제로서 지금 내가 당면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내가 오랫동안 꿈꾸며 그려오던 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시편 저자처럼, 내가 걸어온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이는 아무도 없다. 설사 앞날에 무엇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발견하게 될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할 수는 있다. 내가 만나 겪게 될 상황이 어떠한 간에 신실하게 견디어내도록 은혜를 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슬픔에서 내일의 기쁨이 움터나온다는 신앙의 확인인 것이다.

성서는 백성들이 겪는 불행을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으로 묘사한다. 하느님께서 죄인으로 판정된 백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향해 회심하고 응답하도록 바꾸시기 위한 것이다. 나 개인의 역사에서도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그 어떠한 응답도 이러한 응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이것과 다른 응답은 단지 내가 참된 인간이 되어 가는 길에서 어긋나는 것일 뿐이다. 신앙의 태도는 진실로 내가 발견하고 당면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태도이다. 개방된 마음으로 삶의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의 길인 것이다.

묵상 성구

- 시편 126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
- 에페 2,1-10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 로마 8,28-39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주천사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능천사들이나 높이나 깊이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요한 15,1-1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 1요한 3,1-2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니,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 요한 17,20-26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 또한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생활

1.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우선 우리의 신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나온 삶의 경험 속에서

영적생활, 관계생활, 직업생활, 여러 가지 책임생활도 주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 이것을 share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한 목회자 — 기쁨과 감사의 삶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삶, 내시며 기쁨과 감사의 삶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신분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그 신분에 충실하려고 애쓸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겪은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2.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그 흐름을 존중하시면서 조심스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매마르고 거친 절망의 상황에 생기의 물을 조심스레 흐르게 하여 희망을 새로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보며 거기에 어떻게 하느님이 함께 해주셨는지 기억하고, 현존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 앞에 선 인간의 바참한 모습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꺾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창세 3,1-8).

뱀이란 표상에 나타난 죄의 심리와 생태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이사 65.17; 묵시 21.5 참조). 죄란 창조된 실존으로서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지어내시는 하느님 창조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사 29.16 참조). 죄스러움의 체험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인간 실존의 공동 체험일런지도 모른다. 죄 앞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서 솔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서는 죄의 심리와 생태를 ‘뱀’이라는 표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뱀은 한편으로는 징그러운 존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혹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뱀무늬로 만든 장식품들이 눈에 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지혜란 참다운 삶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활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지혜의 힘이 ‘뱀’이라는 상징성 안에서 권력의 표상으로 묘사된다. 남을 다스리고 짓누르는 권력에 대한 동경은 때로 매혹적으로 인간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이 매혹적인 모습 안에 담긴 독소를 지겨워하기도 한

다. 싫어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매혹적인 모습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 저자가 파악하는 죄의 심리이다.

성서 저자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을 바라보며 인간 심성 깊숙이 침투해 있는 죄의 현상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연구한다. 저 뱀은 왜 한편으로는 징그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력적일까? 왜 은밀하게 풀 밑 사이로 기어다니면서 자신을 잘도 숨기기도 하고 또 먼지를 먹으며 살아갈까? 성서 저자는 뱀의 생태에서 죄의 현상이 지닌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성서는 뱀을 세상에서 “제일 간교한 것”(창세 3,1)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상을 통해 첫 인간의 범죄 이야기(창세 3,1-24)를 읽어보면, 이는 단순히 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공통의 실존적 체험으로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웃을 향하도록 이끄는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갈망과 한계 그리고 죄

하느님께 속해 있기에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인간은 동시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이 그 실존적 구조 안에 지니고 있는 한계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의 형태로 앞의 창조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창세 2,16-17). 인간이 누리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질투하는 유혹자는 이 인간조건인 ~~한계를 거부~~하라고 부추기며 접근한다.

그는 왜곡된 질문으로 인간에게서 과장된 대답을 이끌어낸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왜곡되어 부정적인 안목에서 제기된 질문은 여인에게서 ~~과장된 대답~~을 이끌어내어 하느님의 명령, 즉 인간의 실존 안에 부여된 한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죄의 시발점은 과장이며, 유혹자가 결정적으로 공격해 오는 부분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갈망의 영역~~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참다운 진리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인간은 참다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한없는 갈망을 지니고 있고,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을 품게 된다. 인간 본성의 원수인 죄의 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는 바로 이 영역에서 우리 자신과 유혹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과연 이 참다움과 영원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일

인간성으로 보아 벗어난 관계
낙관적인 (과장된) 태도를 보아 → 413

까? 또 채워질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물음이다.

유혹자의 말에는 두 가지가 왜곡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인간의 갈망이 채워지는 체험을 눈이 열리는 과정, 즉 무엇을 새로이 인식하고 파악하는 과정, 즉 지혜를 소유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눈이 밝아져서”라는 표현은 영리해져서 간교해졌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참다운 지혜란 결코 눈의 밝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의 밝음을 통해서 얻어지고 소유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마태 5.8) 라는 말씀처럼, 성서와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는 늘 이기심에서의 정화를 강조하며,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께 이르는 길임을 강조해 왔다.

또 다른 왜곡은 하느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낌없이 자신을 모두 내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인간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질투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국 죄는 참다움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욕에 사로잡히게 하여 모든 것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죄가 가져오는 단절과 소외

죄의 생태 안에는 물귀신 근성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 즉 남



을 죄로 끌어들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죄는 늘 동조자를 구해 연대적인 힘을 형성하지만, 그 연대감은 결국 서로 단절되고 소외되는 현상으로 우리 인간을 끌고 가기 위한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이러한 단절과 소외가 성서에서는 “가리고” “숨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죄의 궁극적 결과가 하느님과 단절임이 드러난다.

죄가 이런 잠정적 일치는 즉시 서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소외의 현상으로 뒤바뀐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죄가 저질러 놓은 결정적 결과는 하느님에게서 인간을 떼어 놓고 소외시킨 것이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서가 묘사하는 죄스런 인간의 모습은 다양하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죄의 종으로 팔린 몸”(로마 7.14)으로 전락했으며, 하느님과 함께 친근하게 거닐던 존재가 이제는 “끓아 터진 상처에서 나는 냄새”(시편 38.5) 때문에 스스로를 멀리 소외시켜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하느님의 약혼녀로서 사랑스럽던 존재가 이제는 “창녀”(에제 16.35)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자신을 스스로 숨겨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다. 죄는 하느님과 자신 사이에 엄청난 벽을 쌓고, 스스로 배신자라는 인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단죄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힘~~이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자신을 단죄하면서 죄의 기세는 점점 더해 간다.

죄의 신비, 사랑의 신비

죄란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죄의 굴레를 뒤집어쓴다. 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저질러진 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게 된다. 하

지만, 죄의 굴레보다 더 큰 것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이다. 하느님의 사랑이란 결코 내가 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하느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먼저 하느님께서 나를 조건없이 사랑해 주셨다. 사랑은 거저 받는 은혜이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펼쳐지는 ~~죄의 신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결코 자신을 험오하게 만들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의 힘을 얹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때로 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죄의 놀라운 힘에 대해 공포감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은혜를 하느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분명히 베풀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죄란 생명과 진리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하는 힘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서 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요한 8,44). 죄의 본성은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성서가 파악해서 묘사하는 죄의 힘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죄는 우주적인 힘이며 연대적인 힘으로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죄가 우주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훨씬 큰 힘이기에 그것을 얹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죄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에 하느님의 구원적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죄가 연대적 힘이라 함은 죄 그 자체 안에 번식력이 있다는 것이다. 죄를 통해 형성되는 연대감은 내가 여기에서 저지르는 죄가 저기에서 저 사람이 저지르는 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제도 속에 침투해 있는 죄가 나의 죄스러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놀라운 신학적 선언인 것이다.

죄에 역사성이 있다는 말은 죄란 역사적 현상으로서 그 기원과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저지르는 죄가 과거에 저질러진 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신비를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이 체험 안에서 죄의 신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되어 이러한 은혜를 하느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묵상 성구

- | | |
|------------|--|
| 창세 3,1-14 |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
| 에제 16,1-63 |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
| 로마 1,18-32 |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었고 조물주 대신 피조물을 위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

로마 7,13-25 비참한 인간,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호세 11,1-11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시편 38 끓아 터진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두 나의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성찰

1. 나 개인 안에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죄의 가증스러운 파괴적 힘을 명백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체험을 세세하게 돌이켜 보면서 이 죄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2. 주님을 향한 투신에서 가장 약하고 죄에 노출되기 쉬운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핑계와 속임수를 씹니까? 나의 의무와 책임감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핑계를 곧잘 대곤 합니까?

용서는 새로운 창조의 손길

—
 “어서 야훼께로 돌아 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 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 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야훼님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 오리라.
 어김없이 동터 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 다오.
 (호세 6, 1-3.6)

회심(回心), 모든 변화와 쇄신의 근본

성서에는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 1.18).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 버렸고, 너의 죄를 뜯구름처럼 날려 보냈다”(이사 44.22).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예레 31.34).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부른다. 그분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든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쇄신되고픈 소망은 아마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희망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성서적으로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로 표현된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히 체험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에 그분을 메시아로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은 과연 쇄신될 수 있는 것일까? 죄의 힘에 의해 황폐화된 세상과 사회,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가증스러운 죄의 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쇄신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처럼 굳

은 마음을 도려 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에제 36,26)을 회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마르 1,15)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회심이야말로 모든 변화와 쇄신의 근본임을 가르치셨다.

회심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이사 65,17) 하고 말씀하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오는 구원 체험이다. 진정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요한 3,3 참조).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다. 진정한 회심과 내적 쇄신은 실제적인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끄시는 하느님 사랑의 힘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이 결코 자신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늘 초대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회심을 근본으로 하는 자기 쇄신의 여정은 죄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 묵상은 결코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살피는 양심성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죄 묵상은 오히려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이기에 그분께 되돌아가기 위한 기도이며,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기도이다. 사실 마음속

에 웅어리진 죄스러운 상처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께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느님의 사랑(호세 6,1)을 마음에 지니고 죄 묵상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희망과 격려를 심는 기도가 된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께서는 즐겨 말씀하시듯이, 하느님 사랑의 빛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죄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분의 사랑어린 빛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죄 안에 갇든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다. 하느님 사랑의 빛을 거부하는 영혼만이 오직 스스로를 선택한 의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눈물, 다섯 가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섯 종류로 구분하시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네 종류가 생명을 부여하는 눈물로서 회심의 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셨다. 첫째로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될 지옥불의 두려움에서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 있다. 이 눈물은 아무런 영성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아픔에서 오는 눈물로서 회개의 눈물이라 부른다. 인간 영혼이 죄와 인간 조건의 비참함을 의식할 때 자기 중심적인 영혼의 상태가 그 내부로부터 찢겨지는 아픔으로 눈

물을 흘리게 된다. 영혼은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감각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회심은 시작된다. 셋째로는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동되어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 있다.

넷째는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 얻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가져오는 눈물로서 조명의 눈물이다. 희망과 감사가 함께 뒤섞인 양심의 가책은 지성을 비추어 느낌과 충동의 혼란이 점차적으로 생명의 강한 흐름으로 변형되어 순수한 사랑의 헌신으로 이끈다. 이로써 영혼은 겸손함 속에서 성장과 자기 인식의 진리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열망하는 영혼은 이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어, 비록 이기적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완전성과 성스러움을 열망하게 된다. 다섯째는 지복의 눈물로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가져오는 일치의 눈물이다. 사랑스러운 영혼은 이제 하느님께 집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적 사랑과 경험을 넘어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단계의 눈물은 사랑이 가져온 궁극적 완성의 열매로서 마음의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다.

인간의 죄스러움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싸이면, 마치 한 겨울에도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는 차디찬 얼음덩이도 녹아 내리듯, 죄로 인해 웅어리진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녹아 내린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더욱 강렬한 영상으로 이 이치를

표현한다. 장작이나 나뭇가지가 불길에 놓여져 탈 때 그 열에 의해 나무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발산되면서 격렬한 불꽃으로 나타나 증발되지만, 그 나무가지가 더 곱게 마르면서 그 불길들은 점점 가지런해지고 조용한 불꽃의 모습으로 자리잡는다.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태울 때 우리 내부의 죄스러움이 정화되어 소멸되면서, 격렬했던 여러 느낌들의 요동이 차츰차츰 가라앉게 되고 고요와 평화의 상태로 전환되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스러움에 대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죄인으로서 회개의 눈물뿐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분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그분을 본받는 조명과 일치의 눈물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용서는 새로운 창조

성서에서는 죄인의 처지를 포로가 되어 먼 고장으로 유배되었거나 절망 속에서 외지를 떠도는 고향 잃은 알거지 신세로 묘사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적으로는 깊은 구렁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시편 130,1)으로 묘사한다. 즉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어 결국 모든 창조물로부터 격리되어 잘라져나간 모습으로 죄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성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깊은 구렁이야말로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장

소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베풀고 희망을 심어주시는 하느님 은총이 지니는 신비이다. 용서란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의 손길이 이 구렁 속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그렇기에 가장 원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언제나 이 깊은 구렁 속에서 일어난다. 아니 그리스도인 본연의 근원적 신원뿐 아니라 교회의 원형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용서가 베풀어지는 이 깊은 구렁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창조적이기에, 하느님 체험은 늘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준다. 용서는 새 창조의 체험이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은혜로서 그분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계시의 체험이다. 그래서 용서는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끄는 새 창조의 체험인 것이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운을 심어 주시는 체험이 용서의 체험이다. 용서의 신비에 담겨진 근본 경험은 인자하시고 풍요로운 구원이신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서는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 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에제 36,26)는 말씀으로 용서의 신비가 가져오는 내면의 변화를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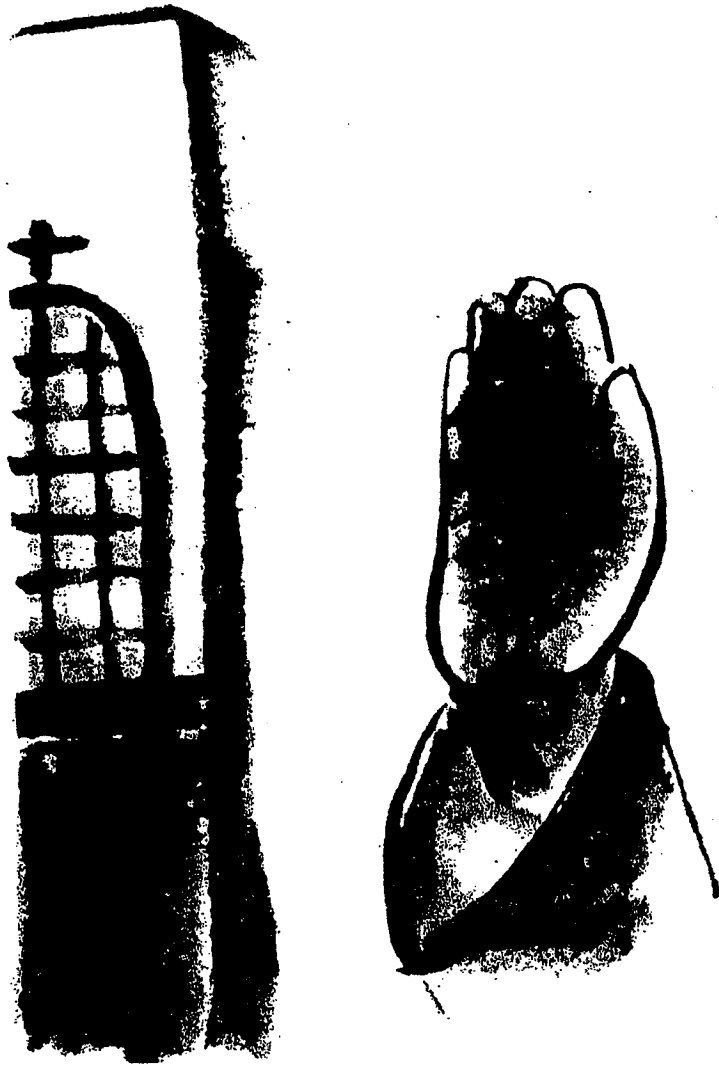
새 창조의 체험에서 발생하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가까우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경이로우시고 높으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준다. 용서의 깊은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보도록 이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서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현재를 통한 과거와 미래의 연관성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감사와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늘 경쾌하다.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용서와 구원의 신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구원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져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불림받게 되었다. 이 용서와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 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마음'은 성사적으로 표현된다. 화해의 성사는 용서받는 이가 지니는 새로운 마음이 전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계속되는 그리스도인다운 회심의 표현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죄를 말끔히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에 의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성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이것이 화해의 성사가 지니는 의미이다.

새로운 창조는 오직 깊은 구렁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렇기에 새 창조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신의 근본적인 결단,



즉 하느님의 초대에 “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좌우된다. 우리 가운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더욱더 청하실 것입니다”(루가 12,48)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에 좌우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이다. “당신은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까?”(요한 21,15)

묵상 성구

- 호세 6,1-6 어서 야훼께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
 만 싸매 주신다.
- 요엘 2,12-17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 시편 51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니
- 에제 36,25-27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 내고 살
 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리라.
- 루가 15,11-32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
 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 요한 21,15-17 당신은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까?

성찰

1. 나의 삶에서 회심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입
니까? 예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2.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늘 삶의 쇄신을 요구하십니다. 투
신과 소명을 쇄신해 결단을 내려야 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
디입니까?